



조제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장과 이수윤 운영센터장이 수상자 및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 (지사장 조제만, 센터장 이수윤)는 지난 4일(수) 지사 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를 초청해 이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땀 흘린 노력에 고마움을 전하고자 ‘2024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식’을 열어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장기요양제도 현장에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 우수종사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자 개최했으며, 우수종사자를 비롯한 소속 기관 관계자들과 건의

및 애로사항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조제만 지사장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를 위해 헌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서 감사하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은 노인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인재이다.”며 “우수 종사자들의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고 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달서지사>

건강칼럼



보생조한의원 원장 조현정



갑자기 발생한 ‘안면신경마비’ 후유증 줄이는 치료법

더운 여름을 보내며 면역력이 떨어진 탓인지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얼굴신경이 마비되어 얼굴이 비뚤어지고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며, 양치할 때 물이 새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안면신경마비는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크게는 뇌에 문제로 인한 중추성안면마비와 뇌에서 나온 신경문제로 인한 말초성안면마비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안면마비 중 가장 흔한 마비는 말초성안면마비 중 하나인 특발성안면신경마비(벨마비)다. ‘특발성’ 안면마비만큼 그 원인을 특정지을 수 없으나 환자의 건강상태, 과로, 감기, 한랭자극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다.

벨마비는 한의학으로 구안와사(口眼喎斜)라고 불린다. 풍사(風邪)가 혈맥으로 침입하여 생긴 실증구안와사와 몸이 허하여 내풍(內風)으로 인해 생긴 허증구안와사로 나누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한약, 침, 뜸, 부항 등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마비진행을 막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안면신경마비의 경우 침약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부담을 줄여, 구안와사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이 된다.

안면신경마비 발생 후 1~2주는 마비가 계속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비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한의원에서는 소염작용이 있는 약침과 습부항, 견정산, 이기거풍산 등의 처방이 사용된다. 이때는 스테로이드를 함께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 신경염증이 제거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부터는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고 마비되었던 근육을 재교육하는 치료가 진행된다.

벨마비의 경우 예후가 좋은 편이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마비가 불완전회복되거나 미각이상, 연합운동 등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한다.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07 / 보생조한의원 ☎053-564-0401



계명대 동산의료원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와 업무협약 체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의료원장 조지흠)은 지난 5일(목) 국제라이온스협회 356-A(대구)지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협력을 통한 국제라이온스협회 대구지구 회원(이하 지구 회원)과 그 가족들의 건강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제공: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달성군보건소, 어르신 건강클럽 운영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소모임인 ‘어르신 건강클럽’ 활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어르신 건강클럽’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치매 등 건강 교육과 레크리에이션·참여형 활동 등을 진행했으며, 소모임을 구성하여 구성원끼리 건강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각 클럽별로 8회 이상의 활동을 전개했다.

<자료제공:달성군청>